

# 中央藥大 同門會報

2002. 봄호 (제8호)

The Alumni News of the Chungang University College of Pharmacy



중앙대학교약학대학동문회



## CONTENTS

CONTENTS

시론 / 복약지도 없이는 약사의 미래도 없다 · 3

프로필/신임 보직교수 · 4

신임 시 · 도지부장 · 4

동문회소식 / 회장단 및 장학위원 회의 · 6

회장단회의 및 감사수감 · 6

2001년도 최종이사회 · 7

감국회 모임 · 7

동기회동정/13회 / 동기회중 가장 활성화된 13회 동기회 · 8

여동문회소식 / 완전 의약분업의 올바른 정착을 기원하면서 · 9

지부별소식/ 중구 지부 / 목역산의 정기를 받은 열린 동문회 · 10

천안시 지부 / 고향동문으로 뭉쳐 끈끈한 선후배의 정 · 11

시흥시 지부 / 시흥시 동문회 탄생을 신고합니다! · 12

고양시지부 / 족석 기금 모금으로 모교사랑 입증 · 13

특별기고 / 동문수학(同門修學) · 14

만평 / 더이상 물러 설곳 없다 · 15

회원동정 · 16

총동문회 및 학교소식 · 20

동문회비 및 기금 안내 · 21

편집후기 · 22



인쇄 : 2002년 5월 19일

발행 : 2002년 5월 20일

발행인 : 유영후

편집인 : 황공용

발행처 : 중앙대학교약학대학동문회

주소 :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707-38

(테헤란오피스 빌딩 1309호)

전화 : 565-1700

팩스 : 564-1701

E-mail: capa21@hananet.net

기획, 인쇄 : 유전문화사

전화 : (02)2263-1901(대)

팩스 : (02) 2263-1905

E-mail: YC1905@chollian.net

# 복약지도 없이는 약사의 미래도 없다

"한방과립으로 감기약 주세요!"

의약분업이 본격적으로 진행된 지 2년여가 지난 요즘에야 간혹 듣게되는 환자의 요구다. 복약지도에 관한 한 의약분업이 시작되고부터 약사뿐만 아니라 고객의 입장에서 서서히 잊혀져 가는 듯 했다.

환자의 경우 의사와 상의하고 진찰하여 처방을 받으니 귀찮기는 하나 그런 대로 치료는 자동으로 되는 것으로 여기는 듯 했으며, 약국 역시 대체로 의사의 처방을 처리하는데는 익숙해졌지만 정작 제대로 된 치료적 접근과는 거리를 둘 수밖에 없어, 결국 치료하는 입장이나 환자나 할 것 없이 한번 치료해서 되지 않으면 더 큰 병원에서 다시 처방을 받을 수밖에 없지 않은가 하는 부정적인 흐름으로 변모해 가는 모습이였다. 부작용의 경우도 비슷한 양상이 발생했다.

2년 정도가 지난 요즘은 의원과 한의원의 진찰과 처방을 믿고 열심히 따르던 환자들 중 제대로 치료가 되지 않은 일부 환자들을 중심으로 의문을 제기하기 시작하여 왜 치료되지 않느냐? 다른 방법은 없느냐? 약 먹을 때만 낫고 중단하면 다시 아픈 이유는? 약 먹기가 겁나고 힘든데 다른 좋은 치료방법은 없는지, 대체의학이나 한약은 어떤지 등등 질문이 쏟아져 나왔다. 일단 의문이 발생하자 그래도 약국이 편한지 약사에게 묻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여기서 무엇보다 핵심이 되는 것은 병원과 한의원은 전문을 표방하므로 특정 분야만 잘 알면 되지만, 약국처럼 다양한 질병과 환자가 모이는 곳에서는 다양한 지식이 필요하고 종전보다도 훨씬 폭넓은 복약지



정진모  
(14회, 이사)

**단순히 처방된 약물을 조제하는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환자의 불편함을 총체적으로 해소한다는 원래의 취지를 기억하고, 질병치료를 위한 양질의 서비스를 통해 건강하고 행복한 생활을 제공하는 수단으로서 이 3가지 모두에 숙달해야 함은 물론 그 직접적인 실천덕목인 복약지도의 의미가 새삼 강조되어야 하는 것이다.**

도가 요구된다는 점이다. 즉, 의사 처방대로 약주고 부작용 없으면 효과와 불편에 관계없이 진행된다는 소극적 복약지도에서 벗어나 새로운 제도가 만들어낸 적극적이며 보다 효율적인 복약지도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언제나 그렇지만 약국의 업무는 크게 세가지로 분류 될 수 있는데, ① 처방조제-부작용, 배합, 작용, 효능, 용법, 금기, 주의사항, 컴퓨터 등 ② 일반약, 의약부외품, 화장품, 생필품으로 의약에 밀접한 품목 등 ③ 한약, 건강식품 등이 그것이다.

대부분의 근무약사들 중 모든 업무에 능숙한 분은 많지 않은 것이 현실이지만, 새로운 의약환경 하에 의사·약사·환자 중 유일하게 3가지 업무를 취급하고 이해하는 쪽은 약사여야 하기 때문에 이 모두에 대한 지식과 능력이 요구될 수밖에 없는 것으로 생각된다.

단순히 처방된 약물을 조제하는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환자의 불편함을 총체적으로 해소한다는 원래의 취지를 기억하고, 질병치료를 위한 양질의 서비스를 통해 건강하고 행복한 생활을 제공하는 수단으로서 이 3가지 모두에 숙달해야 함은 물론 그 직접적인 실천덕목인 복약지도의 의미가 새삼 강조되어야 하는 것이다.

약사의 직능이란 다양한 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단순조제와 투약이 아닌 인간이 갖는 무한한 질병치료에 대한 욕구와 건강생활에 대한 도전이라 보아야 하며, 이를 위한 구체적인 실행과제로서 진정한 복약지도는 약사로서의 기본적인 권리이자 의무일 수밖에 없다. 복약지도 없이는 약국과 약사의 미래도 없다는 점을 명심하자.

## 신임 보직교수



〈학 장〉  
최 영 옥(24회)  
● 중앙대 약학 졸  
● 중앙대 약제학 박사  
● 담당과목 : 약제학



〈학부장〉  
황 완 균(26회)  
● 중앙대 약학 졸  
● 중앙대 생약학 박사  
● 담당과목 : 약품식물학, 본초학

## 신임 시·도지부장



〈시흥시 지부회장〉  
상 병 준 (9회)



〈구로·금천 지부회장〉  
이 호 섭 (12회)



〈관악구 지부회장〉  
문 재 빈 (13회)



〈도봉·강북 지부회장〉  
신 상 직 (17회)



〈동대문구 지부회장〉  
조 중 형 (18회)



〈고양시 지부회장〉  
박 기 배 (20회)



〈학과장〉

천 영 진

- 서울대 약학 졸
- 한국과학기술원 생물공학 박사
- 담당과목 : 생화학



〈의약식품대학원장〉

임 철 부(6회)

- 중앙대 약학 졸
- 중앙대 약화학 박사
- 담당과목 : 유기약품제조화학



〈의약식품대학원장보〉

심 상 수(26회)

- 중앙대 약학 졸
- 가톨릭대 생리학 박사
- 담당과목 : 생리학, 해부학, 건강과 약



〈중랑구 지부회장〉

원 장 희 (15회)



〈대구시 지부회장〉

최 진 혁 (15회)



〈성남시 지부회장〉

이 태 범 (17회)



〈천안시 지부회장〉

방 용 남 (23회)



〈안양시 지부회장〉

이 극 선 (20회)



## 회장단 및 장학위원회 회의



〈일 시〉 2월 16일 토요일 동문회관

### 〈참석자〉

유영후, 김기홍, 지선훈, 오세형, 최종목, 천흥기, 김채윤, 임완호, 정재일, 이규진, 박호일, 황공용, 서국진, 이규식, 윤대봉, 박석동, 박계환, 김경오, 김영식, 최영욱(모교학장)

### 〈토의사항〉

1. 최종이사회 개최의 건
  - 3월 중순경 → 감사
  - 4월 초순경 → 최종이사회
  - 5월 말경 → 정기총회
2. 학교발전 설명의 건
  - 모교연구실 구조조정을 기하고 새로운 연구실로 점차 변화를 계획하며 실력있는 교수들을 등용하여 첨단학문을 연구할 수 있도록 한다.
  - 50년사 기념행사는 학교측과 동문회가 상의하여 실행한다.
3. 장학기금 설명의 건
  - 학장이 당연직이므로 신임 최영욱 학장으로 교체한다.
  - 후학들의 장학금 수여는 종전대로 시행한다.
4. 기타 토의사항
  - 회원명부 발행은 한번 더 검토한 후 시행한다.
  - 의약외품 특매건은 집행부에 일임

〈일 시〉 4월 12일 편집위원 및 총무회의

### 〈토의사항〉

- 회원명부 발간의 건
- 동문회보 2002년 봄호 발간의 건

## 회장단 회의 및 감사수감

〈일 시〉 3월 27일 수요일 동문회관

### 〈토의사항〉

1. 최종이사회 개최의 건
  - 최종이사회 : 4월 20일(토) 6시(프라자호텔 또는 센트럴씨티)
  - 정기총회 : 5월 25일(토) 6시(프라자호텔 또는 센트럴씨티)
2. 회원명부 발간의 건
  - 5월 25일 정기총회에 즈음하여 전 회원에게 발송 예정
  - 일반회원은 일반회비(2만원)와 회원명부대금(1만원)을 전원 납부하는 운동을 벌인다.



# 2001년도 최종이사회

약대총동문회는 지난 20일 오후 6시 서울 중구 소재 프라자호텔에서 최종이사회를 열고 현재의 임원 임기를 3년에서 2년으로 단축하는 한편, 유임 및 중임을 금해 단임토록하는 안건을 심의, 통과 시켰다.

이날 유영후 회장은 경과보고를 통해 “조만간 발간될 회원명부가 미주지역 등 해외까지 보낼 예정이라 세계 곳곳에 있는 동문사이를 잇는 교류의

매개체 역할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장학사업·회보·각종 행사를 개최하는 등 지부·동기회 활성화를 위한 올해 사업계획안과 1억 3,100여만원의 예산안을 총회에 상정기로 했다.

## 감국회 모임

지난 2월 6일 강옥희 회장이 참석한 가운데 동문회관에서 이규진(9회) 대약 부회장으로부터 의약분업과 대한약사회에 관한 현황설명을 들었다.



3. 2001년도 세입·세출 결산심의

4. 2002년도 예산안 심의

5. 기타 토의사항

- 젊은 후진들의 참여를 독려하고 동문회 활성화를 위해 임원 임기를 2년으로 단축



〈일 시〉 3월 27일 수요일 동문회관

제5차 회장단회의에 이어 박영규, 홍병석, 김영일 감사로부터 2001년도 세입, 세출, 회무 정기감사를 수감했으며, 모교의날 행사를 위시하여 전년도 결산 보고 및 신년도 예산안심의 등을 중심으로 꼼꼼하게 진행되었으며, 특히 지부회비 납부 활성화 방안 강구에 대한 의견이 있었다.



# 동기회중 가장 활성화된 13회 동기회



김 중 성  
(13회, 동기회장)

금년 2002년이 65년 약대 입학한 지 37년, 졸업한지 33년이 지났다.

13회 동기회 회장직을 맡은지 9년 동안 많은 일들이 있었으며, 이충식 상무(유한양행)가 총무를 맡아 갖은 일 어려운 일들만 처리해주니 지면을 통해 고마움을 전한다.

소모임이 많이 활성화되어 있는데, 매월 13회 전체 동기회 모임에 20여 명이 참여하고 있는 것을 중심으로 인천지역, 탐클럽 대전지역, 부산지역, 여자동기생들 모임 등 기타 소모임들이 지속되고 있다.

오늘까지의 동기생들의 활동사항을 간략히 소개해 본다.

다 아시다시피 문재빈 동기가 대약 부회장직을 성실히 수행하고 있으며, 서국진이 방송위원회에서 10여년간 활동을 했고, 안병식이 로타리클럽 총재를 끝내고 광명시장에 도전할 것(?)이라는 의견도 있고, 안상회는 근무중에 있으며, 신선철이 미국계 한국화이트홀 사장으로, 염윤기가 순천향의대 약리학교수로 있으며, 이충식이 유한양행 상무이사를 맡은지 2년이 넘었

으며, 김병현이 복제주군 약사회장직을, 엄계숙이 약대 여자동창회 총무로, 박임희는 안산 세한병원 약국장으로 봉직하고 있고, 안영도는 미국과 한국 두곳에서 의사면허를 획득하여 의정부에서 현대성심병원을 개업중에 있으며, 윤창현이 순천향병원 약제과장으로, 김종성은 김포시 생활체육회장으로 활약중이며, 정갑진은 뉴욕에서 약사회장도 맡았었고, 그 아들이 미국 검사에 임용되어 훌륭히 근무수행중이며, 최문항은 LA에서 비금속분야에서 성공했으며, 그 외 미국에 거주하는 동기는 김윤중, 강홍상, 박상숙, 박상인, 박정자, 안준호, 송석남, 지혜란, 정태수 등이 있다.

약국이 아닌 다른 직업을 가진 동기들로 김영덕이 창신동에서 파리바게트 제과점을 하고 있으며, 이수걸은 건축전문회사에서 이사로 재직하고 있고, 황광남은 출판업을 한다고 한다.

그외 유명을 달리한 동기는 김두석, 손영희, 신성균, 이창환, 김상열, 신양순, 이원협, 박승식 등인데, 먼저간 동기들에게 우리 13회 일동의 이름으로 명복을 빈다.

해마다 달라지는 우리 모습을 보며 다 함께 건강하길 기원하면서 이 글을 마치고자 한다.





# 완전 의약분업의 올바른 정착을 기원하면서



**이 경 옥**  
(19회, 서울시약사회  
의약분업위원장)

**의사들은  
비급여품목을  
급여품목으로  
전환하고 고가약  
처방과 처방 약품  
변경을 일삼는 등  
보험재정 절감과는  
거리가 먼 현상을  
초래하고 있다.  
의료계는 각성하고  
의약분업은 국민을  
위한 제도이며  
국민에게 불편을  
주어서는 안될 것임을  
명심하여야 할  
것이다.**

의약분업이 시행된지 1년 10개월이 흐르고 있는 지금도 일부 약국들의 약국경영이 어려워지고 있으며 나날이 생존권이 위협받고 있는 실정이다. 정상적으로 분업을 준비한 약국들은 의사들의 비협조와 일부 의료기관과 약국들의 처방 담합으로 처방전의 정상적인 흐름을 왜곡하는 사태를 낳고, 이로 인해 병·의원 인근에 위치한 약국들만 처방전을 수용하고 주택가 등에 위치한 대부분의 동네약국들은 처방전을 수용하지 못해 지금도 문을 닫는 약국이 늘고 있다니 참으로 마음 아픈 일이 아닐 수 없다.

의약분업의 원칙 [5.10합의안, 개정된 약사법]이 훼손되어 가면서도 우리 약사님들은 묵묵히 의약분업을 위해 준비하며 끊임없이 정진하였고, 또한 겸양지심으로 “약사 제자리 찾기 운동”까지 펼치기도 했다. 의약분업의 올바른 안정정착을 위해서 말이다.

그러나 정부는 어떠한가? “떡하나 주면 안 잡아먹지!” 식으로 “주사제”를 빼앗아 갔고(분업의 원칙이 무시된 채) 이제는 “보험재정비용”까지 달라는 식으로 소위 “의약품관리료 체감제”라는 명목으로 약국의 막대한 손실을 초래케하고 있다.

급기야 서울시약사회에서는 “의약품관리료 체감제 효력 가처분 신청”과 관련된 법적 소송을 내야만 했다.

정부는 또한 이것도 모자라 보험재정절감 목적으로 2.9%라는 수가인하를 하였고 900여 약품을 급여 품목에서 비급여 품목으로 전환하였다. 그러나 지금 의협은 이를 받아 들일 수 없다는 정책하에 “의약분업자체를 파기하자”는 말도 안되는 어거지를 내놓고 파업까지 불사하겠다고 하지 않는가?

또한 의사들은 비급여품목을 급여품목으로 전환하고 고가약 처방과 처방약품 변경을 일삼는 등 보험재정절감과는 거리가 먼 현상을 초래하고 있다. 의료계는 각성하고 의약분업은 국민을 위한 제도이며, 국민에게 불편을 주어서는 안될 것임을 명심하여야 할 것이다.

“정부와 복지부”는 “성분명처방”을 제도화하고 “담합적결”에 앞장서며 “의사”는 정확한 진료와 모든 처방전을 “성분명”으로 처방하고, “약사”는 “처방전에 의한 조제”와 “처방전 검색과 복약지도”를 철저히 하여 국민건강 복지에 상호 협력하여야 할 것이다. 이것이야말로 “완전의약분업의 올바른 정착”임을 기원해 본다.

# 목멱산의 정기를 받은 열린 동문회



정 훈 교  
(5회, 지부회장)

중구는 서울의 한 중심인 남산을 옆에 두르고 동과서로 뻗치어 자리잡고 있으며, 옆으로는 청계의 맑은 물이

굽이쳐 흘러가 한강에 합류하고, 남산이 그림자를 드리운 곳에 국보1호인 남대문과 행정의 중심지인 서울시청을 비롯해서 서울의 관문인 서울역을 품안에 안고 있다.

그래서인지 대한약사회도 중구에서부터 태동되었다는 사실도 목멱산의 정기를 듬뿍 받은 지리적인 영향이 큰 것 같다. 중구약사회는 초창기에는 갑, 을구로 나뉘어 있다가 회의 기능이 강화 되므로해서 갑을이 통합되고, 뒤에는 성동구 일부까지도 편입되었다. 중구약사회의 초창기에는 서정욱(3회), 이광호(4회) 동문이 중구약사회의 총무로서 살림을 도맡아 하기 시작하다가 김명기(6회) 동문이 중구약사회의 회장직(1974~1976)을 수행중, 연임을 위한 도전을 했고 그때에 뜻을 이루지 못하자 선거에 동참했던 동문들이 그날 이중회(초대회장 5회 : 조취제)를 결성해 어느덧 27년의 연륜을 쌓아왔다. 동문간의 친목은 물론 가족적인 행사에도 적극 동참했으며, 제약회사, 관청 및 중구에 인연을 둔 모든 동문들에게도 문호를 열어 놓고 있다.

이중회는 중구지부의 이사회의 성격을 띄고 매월 22일에 개최되며 중구의 중대동문회를 줄여서 “중”자가 2개가 있어 “이중회”라고 이름 하였다. 7회의 문장윤 동문은 2년간 부회장을 역임했으며, 그 이후 제주도에 서 우리나라에서는 최초로 바나나 재

배에 성공했다. 1982년에 그는 그동안 부회장을 맡고 있던 송주현(7회 : 1982~1988) 동문이 다시 회장을 맡아 6년간 회무를 열심히 하여 타 분회보다도 훌륭한 분회를 만들어 놓았다. 등산대회, 사격대회, 테니스대회 등 서울시약사회에서 주최하는 각종 대회를 석권하는 등 앞서가는 회무를 수행했다. 그 당시 장안에서도 이름 있는 테니스 선수로는 선병진, 김영훈, 이윤재, 권영민, 곽유환 등 일류 선수들을 확보하고 있어 감히 도전할 장사가 없었다.

이어서 송주현 동문은 감사, 총회 의장(현재에 이름)을 수행하고 있으며, 이러저러한 공로로 국무총리상, 약연상 등 무게 있는 상을 수상하였으며, 금년에는 서울시약사회가 포상하는 “서울시 약사대상”을 수상했으며, 약국경영 또한 열심히 하여 약사 신용협동조합으로부터 저축상도 받게 되었다. 9회인 박석연 동문이 1988년부터 8년간 회장을 지냈으며 현재는 고인이 되어 그의 구수한 노래소리도 듣지 못하게 되었다. 트롯트의 여왕인 주현미 동문도 한때는 필동에서 약국을 했으며 가요계에 데뷔전에는 동문회 행사에서 “야래향” 등 피꼬리 같은 노래를 들려 주기도 했다. 약사들이 해외여행을 자주 나가지 않는 1970년 하반기부터 중구 동문회(이중회)는 중앙대학교와 자매결연된 태국의 “출라롱콘대학”을 방문했고, 미국동문회 방문 등 수차례 단체여행을 즐기기도 했다.

중구에서는 총동문회장을 2분이나 배출했다. 1회의 김순일, 김기홍 두 선배님들이 총동문회의 회장으로 혁혁한 공을 세워, 현재의 동문회를 반석에 올려 놓은 기틀을 만들어 놓으

# 고향동문으로 뭉쳐 끈끈한 선후배의 정



방 용 남  
(23회, 지부회장)

천안시 중대약대동문회는 84년 20명으로 처음 출발하였습니다.

초대 회장으로 5회 이남수 선배님을 모시고 총무는 12회 신관호 선배님이 주춧돌을 놓으신 이래 18년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로 천안시약사회에서 동문회원의 위치는 확고하여 다수의 약사회 임원을 배출하고 주도적 힘을 보태왔습니다.

11회 최옥출 선배님이 충남 약사회 회장, 천안시회장을 역임하셨고, 12회 신관호, 13회 김민수, 16회 노남진, 22회 최병수 선배님 등이 천안시약사회장을 역임하고 그외 다수의 임원을 배출하였습니다.

현재도 부회장, 총무, 약국위원장

등으로 우리 동문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또 천안시 지역사회의 특성상 고향동문이 대다수라서 초·중·고 선후배도 겹하게 되는 경우가 많아 끈끈한 정으로 뭉쳐 동문회가 잘 운영되어서 인근지역 동문들의 부러움을 사곤 하였습니다.

80년대에는 대만으로 단체 해외 여행을 다녀온 적도 있고 1년에 한번씩은 1박2일정도 국내여행으로 동문간 유대를 다져왔습니다. 하지만 근래에는 의약분업이라는 전에는 경험해보지 못한 생존의 위기에서 서로간 연락 조차 힘든 시기를 거치기도 하였습니다.

좀 때늦은 감이 있기는 하지만 중대약대동문회 천안시 지부로 다시 태어나는 것을 계기로 지금의 어려움을 딛고 다시 한번 힘을 모아 지역사회에 봉사하고 역량있는 약사회 인재를 배출하는 충남에서 또 전국에서도 가장 빛나는 동문회가 되도록 전 회원이 힘을 모아 나갈 것입니다.

<10페이지에 이어서>

셨다. 김기홍 회장-송주현 총무시절에는 총동문회의 모든 행사 행정을 요식화 해놓았고, 각 약학대학 중에서도 가장 활발한 활동을 하여 타대학 동문들로부터 부러움을 샀다.

김기홍 회장은 동문회 뿐만 아니라 약사회에서도 많은 활동을 하여 대한약사회로부터 "약사금장"의 메달을 수상하였다.

계절적으로 부부동반하여 야외 모임도 자주 하고 있으며, 그간 타구로 진출한 회원까지 지역사회에서 모범이 되는 활동을 하고 있으며 최규한 교수의 지도를 받던 위생화학반들은 남대문에서

희구약국을 경영하시는 조근태 동문 부친의 특별 배려로 약국인턴을 최초로 시작했다. 진교성, 윤주섭, 이윤재, 박석연 등 다수가 그 시절에 동참하였다.

김기홍, 황인규, 서정욱, 선병진, 이광호, 조휘제, 정훈교, 손규산, 김명기, 문장윤, 송주현, 박도규, 조규동, 이해인, 김양원, 박영찬, 조근태 등 "이중회"의 회원을 위시해서 중구에는 개국약사의 경우 전체 218명 중 우리 동문이 22%(47명) 정도 분포 되어 있는 실정이고, 현재는 여자약사의 수가 날로 늘어나고 있다.

# 시흥시 동문회 탄생을 신고합니다!



상 병 준  
(9회, 지부회장)

2002년 4월 4일은 시흥시 중대약대 동문회가 탄생된 날이다. 89년 시흥시 약사회가 결성된 뒤 13여년만의 일이다. 참으로 오랜 기간의 기다림 끝에 이루어낸 동문들의 쾌거가 아닐 수 없다. 시흥은 90년대 전후로 불어닥친 수도권 개발붐으로 급격한 도시화와 양적인 팽창을 겪게 되고 이와 더불어 약국수도 지속적으로 늘어나게 된다.

물론 개국동문들의 수도 알게모르게 늘어나 시흥시 개국약사의 20%를 훌쩍 넘는 거대 동문그룹으로 성장하게 되었다. 그렇지만 짧은 기간 동안에 이루어진 개국동문의 증가에 걸맞은 동문회 조직과 활동이 있었던 건 아니었다. 더군다나 의약분업 시행과 더불어 약국가에 불어닥친 구조조정과 생존에 대한 위기감에 개국가는 눈코 뜰새 없이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던터였고, 치열한 약국간 선점경쟁은 오히려 약사와 약사간뿐만 아니라 동문과 동문사이 관계마저 소원하게 만드는 상황으로 몰고가고 있었다.

2002년 4월 4일은 시흥시 중대약대 동문회가 탄생된 날이다.

89년 시흥시 약사회가

그렇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평소 소원하게 지내고 있던 동문들도 한 데 모여 학창시절의 추억도 더듬어보고, 의약분업 준비로 고달팠던 심신도 위로하고 동문간의 친목을 도모하는 모임의 도래를 간절히 원했고 그 필요성 또한 강력히 제기되어 오고있던 터였다. 동문간 모임 추진은 탄력을 받게 되었던 것이다.

자! 한번 모여보자!

흑석동 파이퍼홀에서 짧은 날의 꿈을 키워 나갔던 동문들이여! 학번은 달라도 함께 나눌 수 있는 학창시절의 추억이 있어 좋은 만남! 아련한 추억을 더듬어 확인해보는 소중한 인연들! 동문들의 의기투합은 빠르고 굳건했으며, 열기는 뜨거웠고 동문간 정은 끈끈했고 두터웠다. 흩어지고 누락된 동문 주소록을 한곳으로 모으고 각 동문들에게 시흥시 중대약대 창립동문회를 알리는 파발마를 띄웠다.

드디어 2002년 4월 4일 유영후 동문회장님을 모시고 바닷가가 보이는 멋스러운 장소에서 시흥시중대약대 동문회가 역사적인 첫발을 힘차게 내디디게 되었던 것이다.

이제 첫걸음만을 시작하는 동문회지만 끈끈한 동문간 유대감과 결속력으로 지역사회에 봉사하고 책임을

다하는 동문! 약사회의 큰 일꾼을 배출하는 동문회! 타 동문지부에 모범이 되는 일 등지부로 성장하는 동문회가 될 것을 다짐한다.



# 즉석 기금 모금으로 모교사랑 입증



박기배  
(20회, 지부회장)

4월 16일 드디어 우리 고양시도 중앙약대동문회 고양시 동문회를 제일약품P&F후원하에 풍동입구 음식점에서 유영후 동문회회장님, 최영욱 모교학장님, 김홍 고양시약사회장님을 모시고 중앙약대 동문회 고양시 지부회를 결성하여 친목과 단합을 과시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여러 동문 선배님이 학교 발전을 위하여 즉석 성금을 내어 그 자리를 매우 뜻깊게 하였습니다.

박기배 지부장(메디칼약국)이 100만원을 동문회발전기금으로 내어주셨고, 학교발전기금으로 온누리시민약국(김은진, 이재희) 100만원, 창암약국(함삼균) 50만원, 한솔약국(박건규) 50만원, 대학약국(방극상) 50만원, 그리고 메디팜큰사랑약국(김춘규)이 100만원을 회사하여 그 자리를 더욱 빛나게 하고, 고양시 동문의 학교사랑을 발휘하

여 타분회의 모범이 되었습니다.

전체 45명중 25명이 참가하여 성황리에 개최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하며 여러분의 성의에 매우 감사를 표합니다.

앞으로 바쁜 중에도 더욱 자주 모여 우리의 단합과 기상을 보이이고 고양시민으로서 더욱 깊게 애정가지고 지역사회에서 모범을 보입니다.

그리고 전체동문회에서 동문회의 활성화를 위하여 전국의 전 동문이 참가하는 기획 특판을 진행하고 있는바 여러분이 적극적 참여를 통한 지부와 전체동문회의 활성화로 우리의 빛나는 역사를 앞으로도 더욱 빛나게 하기 위하여 노력을 해나가도록 약속합니다.

우리 고양시 동문회에서는 동문에게 이익이 되도록 각 약국에서 다빈도 처방약 중 외자회사약을 중심으로 좀더 신속하고 알차게 구매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일부 동문은 벌써 약국상호간정보를 교환하여 알뜰구매를 하고 있으니 혹시 부족하거나 고액의 의약품이 단기간 다량 소모되는 품목은 총무에게 연락하면 이익이 되도록 할테니 연락 바랍니다.



# 동문수학(同門修學)

-시류에 휩쓸리지 말고 선후배 본연의 자세를



오 세 형  
(3회, 고문)

우리 약사들도  
약사회의 각종  
선거때만 되면  
합종연횡으로 자신의  
입신양명을 위하여  
정신없이 뛰다.  
그러나 우리 동문들은  
거기에 휘말리지 말고  
진짜 동문수학을 한  
동지답게 선배는  
후배를 사랑하고  
후배는 선배를  
존경하는 전통을 살려  
타의 모범이 되는  
동문이 되기를  
진심으로 빈다.

어떤이는 말한다. 인간은 태어날때부터 경쟁자가 생긴다고, 그 중 자기 형제가 가장 가까우면서도 가장 치열한 경쟁자라고. 그럴 지도 모른다. 부모의 사랑을 좀더 받으려고 또 공부도 더 잘 하려고 자라면서 더 출세하려고 더 부자가 되려고 온갖 욕심을 부리는 것이 형제 자매인지도 모른다. 그러니 동문간에도 형제 못지 않게 라이벌 의식은 더 강하게 작용하는지 모르겠다.

옛날 중국의 전국시대 귀곡(鬼谷)선생님 밑에서 동문수학한 사람 중 소진(蘇秦)과 장의(張儀)라는 사람이 있었다. 그때는 군웅할거시대라 많은 나라가 전쟁으로 명멸하고 칠국이 남아서 남북조 시대를 이루고 있을 때였다. 함안(지금의 서안)에 자리잡고 있는 진(秦)이 가장 강대했고 황해를 따라 북쪽에서부터 초(楚), 제(齊), 연(燕), 한(韓), 위(魏), 조(趙)의 육국이 정립해 있었는데 그들은 항상 진을 두려워하고 있었다.

이때 소진이 세력이 되어 육국을 돌아다니며 설득을 했다. 즉, 육국이 서로 동맹을 맺어 강대한 진에 대항한다면 제아무리 강대한 진이라 하더라도 탄마음을 먹지 못할 것이라고, 그래서 육국의 왕들은 소진의 뜻에 따라 동맹을 맺고 소진을 육국의 재상으로 삼으니 이것이 곧 합종이다. 그래서 몇 년간 전쟁없이 지내는데 장의가 생각하니 은근히 질투가 나서 합종을 깨뜨릴 연구를 하게 된다. 그래서 진나라를 찾아가 진왕에게 연횡계(連橫計)를 설득하게 된다. 즉 약한 나라부터 압력을 넣어 횡으로 동맹을 맺으니 자연 합종은 깨지고 말았다. 그래서 “합종연횡”이란 고사성어가 나오게 된 것이다. 그 후 진은 육국 중 약한 나라부터 합병하기 시작하여 결국은 통일을 하게 된다.

요즈음 선거철이 가까워지니 신문지상이나 기타 매스컴을 통해서 “합종연횡”이란 말이 많이 나온다. 정치판에서는 지금도 2천2백여 년 전의 그 고사가 금과옥조로 적용되는 모양이다. 우리 약사들도 약사회의 각종 선거때만 되면 합종연횡으로 자신의 입신양명을 위하여 정신없이 뛰다. 그러나 우리 동문들은 거기에 휘말리지 말고 진짜 동문수학을 한 동지답게 선배는 후배를 사랑하고 후배는 선배를 존경하는 전통을 살려 타의 모범이 되는 동문이 되기를 진심으로 빈다.



# 더이상 물러 설곳 없다!

16강!!!

16강!!!

16강!!!



제발...

## 김기호교수 정년퇴임식

동문가족 등 120여명 참석



김 기 호 (4회)

중앙약대 미생물반 동문회(회장 김영희)는 지난 9일 오후 6시 힐튼호텔에서 '송강 김기호교수 논문봉정식 및 정년퇴임 기념식'을 개최했다.

기념식에는 박명수 중앙대 총장을 비롯해 이석희 전총장, 박만기

대한약학회, 이강만 약학회 미생물분과학회, 백우현 PDA학회, 한덕용, 김일혁, 손동헌 전 약대교수, 조의환 삼진제약 부회장, 한만영 한올제약 대표이사 등 120여명의 동문들이 참석했다. 김교수는 “국가적으로 어려운 시기에 호텔에서 기념식을 갖게돼 송구스럽다”고 말하고 “여생은 약학교육과 연구에서 벗어나 건강하고 활기찬 나만의 생활을 하고 싶다”고 밝혔다.

김영희 회장은 “후학들은 교수님이 멋진 새삶을 펼쳐가시기를 마음모아 축원한다”고 말하고 “교수님께 배운대로 뜨거운 가슴으로 사람을 사랑하는 약사로서 살겠다”고 다짐했다. 한편 이날 기념식에서는 약학회 미생물분과위원회가 감사패를 증정한 것을 비롯 △중앙대약대 교수회가 행운의 열쇠 △미생물전공 대학원동문회가 십장생도 조각도를 전달했다.



▲중앙약대 미생물반동문회는 지난 9일 오후 6시 힐튼호텔에서 '송강 김기호교수 논문봉정식 및 정년퇴임 기념식'을 개최했다.

## 모교 파이퍼홀에서

-입학식은 2월 28일



2001학년도 학위수여식이 2002년 2월 21일과 22일 양일간, 1, 2캠퍼스 구분 없이 제1캠퍼스 교정에서 각 단대별로 나누어 치뤄졌다.

또한 이와는 별도로 합동졸업식이 2002년 2월 22일 오전 11시에 아트센터 대극장에서 열렸다. 합동졸업식은 대학원 수료식과 함께 수상 대상인 학부생만이 참여했다.

기존 학위수여식의 경우 학생들의 참여가 매우

## 제31회 약연상 수상

노석준 강원지부장



노 석 준 (12회)

지난 2월 22일 대한약사회 총회 석상에서 본회 노석준 강원지부장(12회)이 회원 화합과 약사회 발전, 지역주민에 대한 봉사 등 다양한 사회활동을 통해 봉사하는 약사상을 구현한 공로를 인정받아 제31회

약연상 수상자로 선정되어 시상을 받았다.



## 학위수여식 열려

안양캠퍼스 분리 개최



저조하나 참여도와 함께 효율성을 높이고 각 단  
대별 개최로 학위수여식이 하나의 축제로 자리잡  
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분리 개최하게 된 것이다.

약대의 경우 2월 21일 오전 11시 모교 피아홀  
110A 강의실에서 내외 귀빈들을 모시고 모교 교  
수님들과 졸업생들 및 그 가족들이 참석한 가운데  
경건하고 차분하게 졸업식이 거행되었다.

## 보건복지부장관 표창

홍홍만 · 권혁구 · 김종열 동문 수상



홍 홍 만 (1회)

본회 권혁구 이사(9  
회, 대한약사윤리위원  
장)과 김종열 이사(14회,  
대약총무위원장)가 대  
한약사회 정기총회(2.  
22)에서 국민보건 증진  
및 사회복지 향상에 기  
여한 공로로 보건복지부  
장관 표창을 수상했다.

한편 동 총회 석상에서 홍홍만 동문(1회, 동기회  
장)이 역시 약권신장 및 국민보건 향상에 기여한  
공로로 대한약사금장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다.



## 김형수동문 출판기념회 및 제5대 약사신협이사장 선임

출판명 : 다이어트 한근에 얼마요?



김 형 수 (15회)

지난 2월 21일(목) 영  
등포구 백악관웨딩문화  
원에서 김형수의 세잘건  
강법 「다이어트 한근에  
얼마요?」 출판기념회 개  
최. 800여명 참석 성황.

책 내용 : 다이어트의  
요령을 비롯한 건강관리  
의 현실적 접근법을 「세  
잘건강법」으로 쉽게 풀어서 체계화시킨 건강서적.

또한 2002년 2월 23일(토) 서울약사신협 제10  
차 정기총회(전신 삼회신협 포함 25차)에서 전임  
조택상 이사장님에 이어서 제5대(전신 포함 14  
대) 이사장에 선임되었다.

김형수 신임이사장은 「오늘의 서울약사신협은  
역대 이사장을 비롯한 7,000여명의 조합원들의  
피와 땀으로 이룩된 하나의 기적」이라 전제하고,  
「격변하는 금융환경속에서 더욱 투명한 내실경영  
으로 조합원들에게 보다 많은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것」을 다짐했다.

# 43년만에 졸업장 받은 前조종사 이송일씨

나이 62세 중요하지 않아... 포기하지 않는 삶을 배웠습니다!

21일 중앙대 약대 졸업식에선 입학 43년만에 졸업하는 이송일(李松一, 62)씨의 이야기가 단연 화제였다.

59학번인 이씨는 약학과 3학년을 마친 지난 62년 포병으로 입대하면서 공부를 중단하게 됐다. 이후 항공장교 응시해 합격한 뒤 월남전에 참전해 무공훈장을 받는 등 10년간 군생활을 했다. 대위를 끝으로 전역한 후엔 산림청에 잠시 근무하다가 72년부터 대한항공에서 조종사로 일하는 등 학업의 길을 되찾기가 쉽지 않았다.

못다한 공부를 해야겠다는 생각한 것은 99년 2만 5000시간 무사고 비행 기록을 끝으로 정년퇴직을 한 뒤였다.

하지만 늦깎이 공부에 어려움도 많았다. 이씨는 "첫 중간고사 때는 시험준비를 위해 3시간 잤다가 다음 날 어질어질해서 전날 공부한 걸 다 잊어 먹었다"며 "젊은 학생들 보다 2~3배는 시간을 들여야 겨우 따라갈 수 있었다"고 말했다. 그래서 마지막 한 학년 공부하는데 2년이 걸렸다. 수업시간마다 맨 앞 자리는 이씨의 차지였고, 학기중엔 하루 5시간 이상 자 본 적도 없다고 한다. 세끼 식사도 모두 학생식당에서 해결했다.

한마다로 중간에 포기하지 않고 꾸준히 할 수 있는 힘이 이 모든 어려움을 이겨내게 했다는 것. 나

이와 상관없이 동문회의 말석을 차지한 이 동문의 새로운 삶을 기대한다.

## 대한민국 서예전람회 입선

김미자 동문

본회 김미자 동문(11회, 이사)이 지난 4월 29일 예술의전당에서 개최된 제10회 대한민국 서예전람회에서 「행·초·선」 제하의 출품작으로 입선의 영광을 안았다.

그간 서울서예대전 공모대전 3회 연속 입선을 포함, 서예협회 주관의 제12회 대한민국 서예대전 입선 등 화려한 경력을 자랑하는 김동문의 정진을 기원한다.

현 동문회보의 제호 역시 김동문의 작품이다.



조 중 형 (18회)

## 박사학위 취득 조중형, 최광훈 동문

〈조중형(18회)〉 : 병태생리학 전공  
미마취 상태의 IgE 매개 천식을 갖는 Guinea Pig에서 독활근 유래 Diterpene Acids의 항천식 작용

〈최광훈(22회)〉 : 미생물학 전공  
Tetracycline Repressor를 이용한 헤르페스계 바이러스의 유전자 발현 조절 시스템



최 광 훈 (22회)

### 결혼

- 조의환(8회) 부회장 2월 2일 자녀 결혼
- 이기안(7회) 부회장 3월 3일 자녀 결혼
- 김정부(7회) 이사 4월 28일 자녀 결혼

### 부음

- 서승종(7회) 이사 3월 2일 별세
- 전승규(7회) 이사 4월 10일 모친상
- 권혁구(9회) 부회장 4월 16일 부친상

### 동정

- 4월 10일 김창종(11회, 모교교수) 이사 대통령 직속 약사제도개선 및 보건산업발전 특별위원회 위원장에 임명되었다.



## 흑중회 모임

1. 3월 22일 반포미야끼 일식집  
병원약사위원회 신임 임원선정  
- 최기령(8회, 여의도 성모병원) 동문 한국병원약사회 부회장  
- 이대윤(10회, 건국대민중병원) 중소병원 위원장  
- 이광섭(24회, 서울적십자 병원) 보험위원장
2. 6월 중 흑중회 모임 강혜옥(20회, 고신대복음병원) 동문의 약제부장 승진을 축하겸 부산에서 모임 예정



### 행사

- 3월 23일 관악구 지부 정기총회 관악구 약사회관/신임회장 문재빈(13회), 부회장 김종렬(14회), 총무 안희영(27회)
- 4월 1일 김명섭(5회)이사 "후원의 밤" 국회의사당 의원회관
- 4월 27일 부산지부 정기총회 크라운호텔



- 4월 7일 21회 정기총회 모교 파이프홀 신임 회장 : 김두수(21회)



- 4월 26일 중랑구지부 모임 중랑구 망우동 "해송"



### 이전

- 5월 4일 황문상(11회) 부회장 서울시 종로구 종로4가 153-1번지 인제약국(02-2264-1939)

# 흑석동 캠퍼스 정문이 달라진다.

## 14m대형 조형물로 새단장, 진입로 주변도 정비



흑석동 교정의 정문이 현대적인 조형미가 물씬 풍기는 세련된 구조물로 바뀐 모습을 볼 날이 멀지 않았다. 모교 장단기 발전계획에 따른 정문 재정비사업이 시작돼 오는 6월말까지 완공될 예정이다. 달라질 모습을 미리 보면, 우선 중앙대를 상징하는 높이 14m의 대형 구조물이 눈에 띈 것이다. 정문 위치가

지금보다 안쪽으로 밀려들어가 정문 앞 공간이 넓어지고, 벤치와 휴게시설을 갖춘 '만남의 광장'이 교문 앞에 마련된다. 그리고 경비실은 지금의 반대쪽에 자리잡아 외부인의 방문을 돕고, 제증명 발급 등 민원서비스 기능까지 갖춘 종합안내소 기능을 하게 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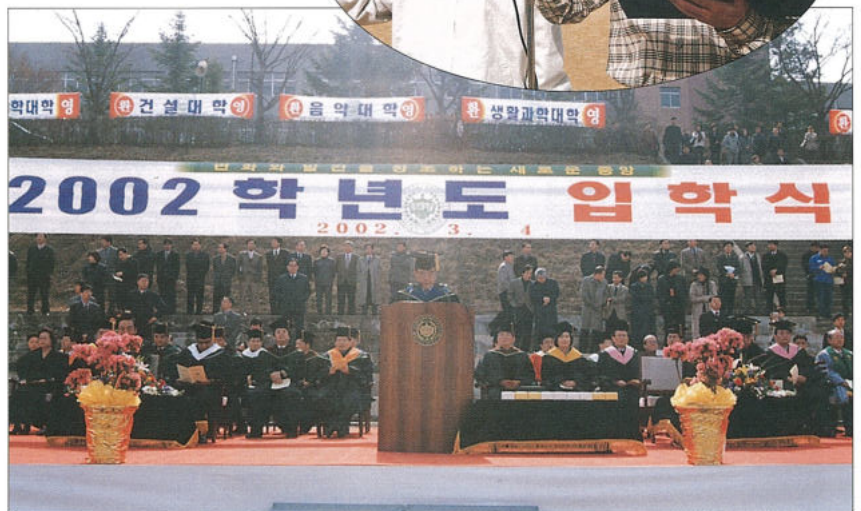
# 2002학년도 신입생 입학식 개최

제1캠퍼스(2월 28일), 제2캠퍼스(3월 4일) 대운동장서



모교 2002학년도 신입생 입학식이 지난 2월 28일 제1캠퍼스에서, 3월 4일 제2캠퍼스에서 각각 열렸다.

지난 해까지와는 달리 서울과 안성 양 캠퍼스에서 분리 개최된 올해 입학식에는 김희수 이사장과 박명수 총장 등 교내 관계자들과 서청원 동창회장 등 내외귀빈이 참석해 신입생들의 입학을 축하했다.



# 동문회비 및 기금 납부자

(4월 30일 현재)

## 장 학 기 금

- ▷ 이규진(9회) 부회장 ..... 200만원
- ▷ 박기배(20회) 이사 ..... 100만원

## 모교발전기금

- ▷ 함삼균(24회) ..... 50만원
- ▷ 김준규(25회) ..... 100만원
- ▷ 이재희(25회) ..... 100만원
- ▷ 김은진(29회) ..... 100만원
- ▷ 이수근(25회) ..... 50만원
- ▷ 박권규(31회) ..... 50만원
- ▷ 방극상(34회) ..... 50만원

## 회장단 회비(연24만원)

박석동(15회), 김승태(15회), 김종환(17회), 정명진(18회), 박계환(18회), 김경오(19회), 이경옥(19회), 김현태(20회), 김수배(21회), 김영식(23회)

## 이사회비(연12만원)

김석자(3회), 박노일(4회), 이능세(7회), 이대윤(10회), 문재빈(13회), 김영희(28회)

## 일반회비(연2만원)

정인천(4회), 김호철(8회), 김초성(12회), 이원주(12회), 김태영(15회), 박창호(16회), 이승호(21회), 채영주(32회), 김사경(34회)

## 미주 일반회비(모두 7회) 총 500불

이복순(100불), 최운선(100불), 윤영희(100불), 강몽운(100불), 박노익(100불)

### 회비납입방법

- 은행지로 : 7613953
  - 조흥은행 : 994-04-008036
- 중앙약동문회

### 연간회비

- 회 장 단 : 240,000원
- 이 사 : 120,000원
- 일반회원 : 20,000원

# 장학금 수여식

▶ 일 시 : 2002년 3월 8일

▶ 장 소 : 중앙대학교 약학대학 교수세미나실



## 약학대학 동문회 장학금 수혜자

장학금명	장학금액	학년	수혜자명	평점
본 동 문 회 (7,000,000)	700,000	2	김 경 희	3.92
	700,000	2	김 원 호	3.93
	700,000	2	김 성 건	3.88
	700,000	2	김 혜 영	3.90
	700,000	3	최 영 미	3.95
	700,000	3	이 석 진	4.04
	700,000	3	전 보 미	4.05
	700,000	4	김 희 정	3.87
	700,000	4	전 주 만	3.83
	700,000	4	이 상 영	3.90
영등포동문회 (1,500,000)	500,000	2	송 명 우	3.85
	500,000	3	구 혜 민	4.00
	500,000	4	한 수 정	3.73
부 산 동 문 회	500,000	4	안 지 현	3.77
여 자 동 문 회 (1,000,000)	500,000	3	송 유 화	3.84
	500,000	4	최 정 민	3.69
한미약품(주) (3,000,000)	약학대학 발전연구 지원금			
<b>합 계 ; 13,000,000</b>				



2002 시작보다 빠른 세월의 속도를 느낀다. 의약분업으로 시간을 뺏기고 처방전 조제로 자존심을 잃고 있지만 그래도 Word-cup 같은 함성 속에서 잃었던 자아를 찾고 싶다. 동문회보 봄호는 동문회원들에게 빼앗긴 봄을 찾아주고 싶은 마음에 한결 기쁘게 달려간다.

황 공 용 (11회, 편집위원장/부회장)

# 徐

동문명부를 정리하는 요즘 우리네 약사사회의 현주소를 확인하는 묘미가 있다. 불과 몇년 사이지만 그 자리에서 계속 개국하는 경우가 드물 정도로 이동이 심하니 약사사회의 부침을 보는 것 같아 썩 편한 마음은 아닌 것이 사실이다.

어려운 시절, 이런 것들을 이겨내는 것은 역시 같은 길을 걷고 있는 동문들의 끈끈한 정이 아니던가? 마음먹고 개정한 동문명부에 손이 자주 가기를 기대한다.

# 明

하염없이 내리는 빗줄기에 떠밀려 찾아가 35년전 서울생활을 시작했던 이대앞 대흥동 골목안, 가파른 언덕길에 이끼끼린 기와지붕, 바람불면 빼겨덕 거리던 대문, 손잡이가 떨어져나간 축간, 외상 막걸리와 콩나물과 연탄 냄새의 구멍가게며 골목어귀의 점(占)집... 낡은 모습 그대로 방치되어 있었습니다. 마음의 행로나 애수 같은 흑백영화가 더욱 애잔하게 가슴을 치는 비오는 날. 떠납시다, 추억여행을!

# 庸

아이웃으라어린이날잔머리써서선물안사주고버티려다결국운동장에끌려나  
가뭇으로때우다가머리어깨무릎발안아픈데가없이고통스러운후에야알겠더라.  
머·리·나·쁘·면·몸·이·고·생·한·다!

# 洙

살아가면서 고통스러운 경험 앞에 자문한다. “왜 하필이면 내게 이런 일이, 아무에게도 손해를 끼치지 않고 착하게 살아가는 내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일까?” 그러나 5월이다. 어린이날, 어버이날, 스승의날 등 나를 존재하게 하는 여러 인연들을 새삼 생각나게 하는 계절. 좀더 남을 배려하는 삶이 받아들이기 어려운 고통을 슬기롭게 이겨내는 최선의 방안이라 다짐해 본다.

〈 편집위원장 〉

황 공 용(11회)

〈 편집위원 〉

서 국 진(13회)

김 기 명(18회)

박 희 용(23회)

김 정 수(26회)

**동문여러분의  
욕고를 모집합니다**

동문회 및 회원들의 활동과 관계된 것이면 형식에 구애받지 않고 어떤 내용이나 환영합니다.  
가급적 관계되는 사진을 첨부하시면 더욱 알찬 구성이 될것입니다.  
동문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과 이용을 바랍니다.

# "부모님 건강"

## 한번 더 생각하세요.

### 고혈압 중풍치료제

### 血氣丸은 혈기환

보혈(補血), 보기(補氣)작용이 있는  
29가지 순수생약을 가미한 생약제제로서  
원기가 허약한데 풍이겹쳐 중풍이 되어  
한쪽 몸 또는 온몸을 쓰지 못하는  
경우에 효과가 탁월하며 특별한  
합병증이 없는 한 혈류순환을 원활히  
함으로써 중풍의 예방효과도  
뛰어난 제제입니다.



방광염, 요도염, 신장병

적응증

방광염, 요도염, 신장병, 신중후  
군, 부종



두통, 치통, 신경통, 생리통

적응증

1. 두통, 치통, 발치후 통증, 인후통,  
귀의 통증, 신경통, 관절통, 근육통,  
요통, 건통, 타박상, 관절염, 염좌  
통, 생리통, 외상통의 진통  
2. 오한, 발열시의 해열



위장염, 속취

적응증

소화불량, 식욕부진, 위산과다,  
위장염, 위 복부팽만감, 오심, 구도,  
속취



식중독(배탈, 설사)

적응증

설사, 식중독, 소화불량에 의한  
설사, 구도, 배탈, 묽은 변



**중앙대학교약학대학동문회**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 707-38번지  
(테헤란오피스빌딩 1309호)

전화: (02)565-1700 팩스: (02)564-1701

E-mail: [capa21@hananet.net](mailto:capa21@hananet.net)